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고도, 우리의 기다림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일은 아주 일상적 일이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기다리는 일로 보낸다. 기다림은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특별하고 적극적인 기대다. 그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를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는 내밀하고 간절한 자세로써 나타난다.

한편 기다림은 자주 불안과 실망을 동반한다.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좌우되고 흔들리며 왜곡되는 탓이다. 게다가 기다리던 것을 끝내 얻지 못했을 때 그 기다림은 헛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 오직 기다림의 이야기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 있다. 사뮈엘 베케트(1906-1989)의 '고도를 기다리며'다. 이 작품은 1969년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대표작으로 제복만으로도 너무나 유명한 희곡이다.

두 명의 떠돌이가 주인공으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어느 시골 길가 나무 옆에서 '고도'를 기다린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면서, 두 주인공은 쓸 데 없이 구두를 벗으려 애를 쓰거나 실없는 말장난으로 시간을 보낸다. 이때 한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 씨가 오늘 밤에는 못 오고 내일은 꼭 온다"라고 전한다. 그러나 두 주인공은 실망하는 기색도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바릇이 돼 있으니까"라고 한다. 기다림은 습관이라는 이 표현은 기다림은 일상적 흔한 기다림이 아니고, 당위의 의미로 들린다. 대상이 오고, 안 오고와는 관계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의무인 듯 말이다. 이 두 사람에게 기다림은 대상과 관계없이 중단될 수 없음을 말한다. 기다리는 것이 곧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최선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지겹고 권태로워지면 '너무 심심한데 목이나 매몰까?'라고까지 한다. 작가는 "아무 일도 안 일하고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안 떠나고"라는 표현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는 기다림의 시작만 있고 전개도 변화도 없다.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고도라는 존재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전부다. 양치기 소년은 막이 끝날 때마다 "고도는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상황에도 이 두 주인공은 기다림을 멈추지 않는다.

도대체 고도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그냥 아는 사람", "거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왜 고도를 기다리는가? 하지만 생각하면 의미 없는 말은 아니다. 잘 아는 대상을 왜 약속 없이 기다리며 찾을 것인가?

또 기다릴 것도 없는 삶이 더 나은 것인가? 삶에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무엇인가를 애써 기다릴 이유가 없다. 두 사람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곧 자신들의 삶이기에, 고도의 존재가 불확실해도 기다림을 중단할 수 없다. 이 기다림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 있다. 오는 것이 확실해야 기다리고, 받을 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야 믿으며, 얻는 것이 분명해야만 다가가는 요즘 세상 법에 따르면 더 그럴 것이다.

타인의 고도가 '나'의 고도가 될 이유는 조금도 없다. 작가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기다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말하는 '내일 온다는 고도'가 내일 오지 않아도 두 사람은 계속 기다릴 것이다. 산다는 것은 기다림을 배우며, 기다리는 일이 아니던가. 다만 우리는 지금 어떤 고도를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고도를 잘 아는 사람도, 가르쳐 줄 사람도 없다. 각자의 고도는 각자가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지향하는 것이 없이는 기다릴 것도 없고, 기다릴 것이 없다면, 희망할 것도, 행동할 이유도 없다. 기다리는 것은 삶의 다른 표현이며, 고도는 기다림이 향하는 지향점이다.

어떤 고도를 기다릴 것인가? 이 결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에서 나온다. 기다림은 시간적 행위 가 아니고, 주어진 자신을 넘어서서 기투하는 의지이며 용기다. 기다리는 고도가 오늘, 또는 내일도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어떤 고도를 기다리는가?를 되물으며 멈추지 않아야 한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아름다운 손가락

뿌지직 소리와 함께 밟던 가지가 툭 떨어졌다. 얼마 뒤, 눈을 떴을 때야 나무에서 떨어졌음을 알았다. 다행히 땀은 끈적이지 않았고 손이 좀 이상했다. 아니 손가락, 식지 않았다. 제법 큰 나뭇가지가 손을 덮친 것이다.

겨울이면 나무를 했다. 나무 밑동, 가지덩굴, 푸나무, 삭정이 가리지 않았다. 그날은 삭정이를 꺾으려고 소나무에 올랐다가 그만 가지가 부러져 떨어진 것이다. 다친 손가락은 좀체 낫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 때였다. 그날도 나무를 한 집 해서 지게에 지고 오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아버지 지게는 내겐 커서 땅에 곧잘 닿았다. 그래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했다. 그런데 잠깐 틈에 그 지겟다리가 돌멩이에 걸렸다. 순간 난 중심을 잃고 쓰러져 하필 그 손이 작대기에 끼여 또 겹지가 부러지고 만 것이다.

오른손 손가락 시련은 기묘하게 멈추지 않았다. 나락의 가늠 리어커에 신고 손가락막걸을 달리다가 고랑창으로 빠졌을 때도 그 손가락이었고, 경운기 사고 때도 하필 그 두지가 부러졌다.

그래서일까. 그 손가락만은 조금 아귀고 비틀어졌

다. 병원은 못 가고 응급처치로 대충 끝낸 손가락, 흉장처럼 상처를 달고 다니는 부끄러움 많이 타는 손가락, 뭇나 내 운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손가락이다.

이후로, 난 누구를 만나면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남들에게 첫인상이 얼얼하겠지만 내겐 손이었다. 약속할 때면, 상대가 내 손가락 크기를 느낄까 봐 재바르게 손을 빼곤 했다. 많은 이가 그런 나를 보고 한마디씩 했다. 어떤 이는 좀 휘었느니, 구부러졌느니, 늘었느니, 못생겼느니 했고, 또 어떤 이는 젊어서 자주 싸웠거나 사춘기 때 화가 나서 벽이라도 쳤느니며 그런 사람 아닐 것 같은데 고된 모양이러며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고생 많았겠다고 위로로 보내 주는 이들로부터 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손가락이다.

도시로 와 생활하면서 그 손가락은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집계손가락으로 인해 가장 난처할 때는 혼련병 시절이었다. 사격 훈련 때마다 나는 가장 굵었다. 당겨야 하는 방아쇠에 손가락이 자주 걸렸다. 조교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대했냐고 밥값 하라고, 짜려보았다. 난 연신 고개를 주억거리며 더욱 열심히 사격에 임했다.

신체검사 때 손가락 이야기를 하려면 일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군인이 되고 싶었고, 그 손가락을 부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뭇나 집계에 대해 일체 함구했다.

그런 그 겹지 때문에 황야에서 무법자와 맞대결을 펼친다면 여지없이 난 그 손가락 때문에 제일 먼저 쓰러

졌을 사람이다. 다행히 무탈하게 군 병역을 마치고 취직하여 곧장 결혼하였다. 그 손가락은 내 삶을 더는 방해하지 않았다.

훗날 살다가 우연히 아내에게 물었다. 내 어디가 좋아서 나와 결혼했느냐고, 아내는 싱크 옷가방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때를 쓰자, 손가락, 아내는 내 손가락이 제일 예쁘다고 했다. 그 식지를 보고 확인했다. 내 굴곡진 삶이 미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여겼는지, 이름처럼 굽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연민 때문이었는지는 모른다.

그날 후, 난 그 손가락이 자랑스럽게 여겼다.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구박받고 소외된 손가락을 껴잡고 의로운 존재로 바꿔주었다. 그 손가락이 나를 지켰고 키웠다는 게다. 회상할 줄 아는 그 상처 덕분에 다른 손가락도 그리고 다른 부위도 견사할 수 있었던 셈이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리의 V를 나타낼 때, 무엇을 가리킬 때는 물론 쿡쿡명을 팔 때나 기러운 몸을 사일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나선 손가락, 서열은 둘째지만 가장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그 손가락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 손가락이야말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나선 어머니며, 국가를 지킨 땀땀한 군인이자 나를 키운 정체성 아니겠는가.

그 손가락 두지는 내 삶의 이력서이자 지문이다. 내 삶의 노고와 오롯이 새겨진, 자기를 기가이 회상할 줄 아는 못생긴 손가락이 나는 뻔뻔뻔한 한 손가락, 잘난 손가락보다 배배 천배는 더 예쁘다.

기고



전남기
전남대 명예교수·철학

은발(銀髮)의 목소리

내키지 않게 겨울 앞엔 선다. 세상에 돌도 없는 내가 나를 향해 절망스러운 얼굴을 내민다. 이런저런 권리와 시늬가 지났고, 유용한 생물학적 힘도 밑바닥을 친다. 가끔 '노인문제'라는 말을 들으면 의기소침해진다. 세상이 노인들 때문에 성가신 모양이다. 지하철 운영적자가 공짜 승객인 노인들 탓으로 보는 것 같고.

하지만 현대의 노인들은 많은 기회를 양보하고 산다. 특히 한국인들은 그 양보 대부분이 자발적이다. 대부분 부모 또는 뒷사람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자신들의 빈궁을 불사한다. 예외가 있겠지만 과거 우리의 어른들은 교육 경험과 무관하게 삶의 지혜가 깊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오랜 세월 '어른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아버지의 말씀을 진중하게 간직하는 우리였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규범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선대가 물려주는 부동산엔 신경을 곤두세우나 '말씀'엔 아랑곳 하지 않는 것 같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부유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행복도는 낮고, 자살률이 높다고 한다. 이 아이러니는 감당하기 힘

든 비극이다.

한국을 두고 '헬조선'이라고도 칭할 때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음을 말한다. 배는 부른데 머리가 비었거나 정신이 썩었음에 대한 자괴다. 이런 판국을 뒤집고 바꿀 누가 거기 없을까? 양도 질도 뒤지지 않는 노령의 사람들을 일깨우자는 생각이다.

어른의 종말 현상은 가정을 벗어나 사회 전체로 확산된 느낌이다.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많은 조직에 장교는 안 보이고 졸병만 득실대는 인상이자. 지도자들이 깃발을 흔들지만 모범에 실패해 실패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렇고 보면 위로부터의 모범이 빈곤하고, 밑으로부터의 불경이 창궐한 사회가 우리의 현주소 같아 심기 불편하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의 하나였던 이어령 교수의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의 몇 구절을 빌어 와야겠다. 이어령은 "스승이란 무엇인가" 자문한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궁금한 사람에게 또 고독하고 외로운 때 길을 일러줄 수 있는 자가 스승일 거라는 생각을 편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꺾먹고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는 일 또한 선생의 임무로 본다. 다분히 철학적 명제인데, 이제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 철학적 척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어령은 죽음을 알면 삶의 이치를 터득한다고 생각한 끝에 죽음을 애기한다. 인간은 사는 대로 죽는다는 견해는 보편화 돼 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다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요. 때가 되었구나. 죽음의 계절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한다."

암 투병 중에 쓴 고백인데 소박하고 진솔한, 그리고 통이 큰 감정에 호감이 간다.

인간의 머리카락 변색 현상은 쇠락이 아닌 내적 성숙이기도 하다. 털 잃은 푸른 과일엔 무르익으면 노랗게 색깔의 변환을 실현한다. 공자는 사람이 나이가 70여에 이르면 자기 마음이 하늘의 뜻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력과 무관하게 인생의 깊이를 통찰하는 안목이 작동한다. 질풍노도의 혼란도 평정을 얻는다.

그러나 그저 노인이라 다 되는 일은 아니다. 현대의 노인은 '나 때' 이야기로 어른 노릇을 할 수 없다. 노인들이 보편적으로 허용될만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찌야 하는지 노인 자신의 살아갈 시간의 조련사가 되어야 한다. 문전에 다가온 죽음을 공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은발들이 가져야 할 자존적 감정을 부탁하고 싶다. 불치 판정을 받은 뒤 스스로 작심한 대로 죽음을 집행한 스킵트니어링은 "젊은이는 매력적이지만 노인은 눈부신다"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 눈부신 노인으로 살기로 하면, 세상에 진 빛을 조금이라도 갠지 않을까.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 20여 년 넘게 열심히 펴내고 있는 그들의 기관지 '키우리'에, 우리 가까이 계시는 어른들이요, 삶의 모범자들의 말씀을 받아 공동체의 지혜를 모색하는 '銀髮칼럼' 페이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 글은 나는 완벽한데 다른 사람들, 나 밖의 세상이 온통 문제라는 지적을 노리는 글이 아니다. 이미 노령에 편입된 사람이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조력하고 싶은 조바심의 표출이다.

社說

국립의대는 전남 동·서부 의료공백 없앨 기회

전남도도가 국립의대 설립 방식을 묻는 여론조사에 돌입했다. 도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전문가들의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의대를 어느 곳에 세우나 하는 문제는 피설문자 당사자의 건강이라는 이익과 관련된 탓에, 여론조사 결과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지역 추천 용역기관인 'AT커뮤니티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1안: 동·서부권 중 한 지역에 의대 선정 후, 대학병원은 양 지역에 설립 ▲2안: 의대와 대학병원을 한 지역에 신설 등 2가지 방안을 마련, 오는 3월말까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인다. 용역기관은 향후 여론조사 결과와 설립방식 선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6월 최종안을 도출한다. 이중 1안은 의대는 동부권과 서부권 가운데 한 곳에에만 설립하는 대신 대학병원은 양 지역에 세우거나 아니면 의대가 없는

곳에 대학병원 대신 지역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식 등을 담고 있다.

전남은 동부권이든 서부권이든 양쪽 모두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한 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몰아주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모 참여에 부정적이었던 순천대가 오는 10월 학내에서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관련 의견청취 및 설명회'를 갖기로 하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일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함께 공모에 참석하도록 유도해 국립의대 신설이 지역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의대를 유지하지 못한 지역에 동일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1캠퍼스 2병원'안이 최절안에 가깝다는 점을 인식할 길 바란다.

광주서도 딥페이크 피해신고... 대책 서둘러야

사람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이미 수차례 딥페이크 피해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이고, 가해자는 10명 중 7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범죄와 달리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심각성을 느끼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한 비중이다.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났

다. 딥페이크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5.8%이며, 올해도 7월 현재 73.6%로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회의와 토론, TF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딥페이크 범죄는 이미 상당 기간 미성년자들 사이에 뿌리를 내린 범죄여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일단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미성년 가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처벌 수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14세 미만)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조정이 모아지고 있다.

모두가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수사와 처벌, 예방대책 등이 나오리라 본다. 다만 10대에게는 엄벌만을 통한 방법보다는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도록 하는 교육도 병행해 어린 전과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도 필요하다.

無等鼓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은 43%로 나타났다. 1년에 1권 이상 종이책을 비롯해 전자책, 오디오북을 읽은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성인독서율은 지난 2013년 72.2%를 기록한 이래 2015년 67.4%로 낮아졌고 이후 62.3%(2017년), 55.7%(2019년), 47.5%(2021년)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성인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터다. 유튜브 같은 영상 미디어의 발달이 주 원인으로 지적된다. 독서를 하라와 맞물려 문학출판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 불황 탓에 모든 분야가 어렵지만 특히 힘든 곳이 문학출판계다.

황자문화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마당에 최근 지역에서 시 전문지가 창간돼 이목을 끈다. 오랫동안 시 창작 강의와 창작을 해온 조선의 시인이 문예지 '시꽃피다'를 내놓은 것이다. 문예지를 창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시를 읽지 않는 시대입니다. 시에 대한 낭만과 서사가 시대적 기

호에 밀려 시는 대중보다는 시인들을 위한 장르로 전락했죠. 문예지를 만든다고 하니 주변에서 극구 말렸어요. 그럼에도 시를 꽃처럼 피우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며칠 전 진도에서는 전국 계간문예지 축제가 열렸다. 계간 열린시학 주관으로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에서 개최한 축제에는 '시와 사람'을 비롯해 '다층', '문예연구', '시와 정신' 등 문예지 편집자를 비롯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예지의 나갈 방향과 지역개념으로서의 문학적 활성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제는 고전이 돼버린 '문학은 모든 문화의 기초'라는 말이 있다. 문학 융성 없이는 문화의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는 얘기가. 책을 읽지 않는 시대 문예지를 창간하고, 축제를 연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한 도전이다. 문예지 창간이라는 뜻을 올린 조 시인의 말이 울림을 준다. "무슨 일을 하든 꽃을 피운다는 마음으로 하면 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면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천 문화부장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